

목포권

“무안반도 통합 임기내 꼭 실현”

정종득 목포시장 “기업도시 성공 위해 필요”

정종득 목포시장(사진)이 “임기내에 목포와 무안, 신안을 한데 묶는 무안반도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다”고 주장했다. 정시장은 이어 “목포시는 무안반도 통합과 100만 광역도시 건설 등을 위해 이미 광역도시 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시에 전담기구까지 만들었다”면서 “그 동안 민간 주도로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종교, 교육 등 지방별, 기능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10일 목포시장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군이 추진중인 무안 기업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과 목포가 통합해야 한다”면서 임기 중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무안 기업도시를 중국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도 개발이 안된 곳이 많은데 무안에 투자하겠느냐”면서 “투자처를 다각화하는 것 못지 않게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목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관광·문화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해안도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35억원 들인 유달유원지내 3층 상가 입주자 없어 예산만 날릴판

까다로운 임대조건, 희망자 없어 입찰 유찰

목포시가 시비를 들여 축교동 유달유원지 구 해수욕장 일대에 신축한 상가 5개월이 지났으나 입주상인이 없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목포 유달 유원지는 매년 모래가 유실되면서 지난 6월 해수욕장이 폐장되고 목포시가 상가를 신축했다.

시는 35억원을 들여 480여평, 지상 3층 규모의 상가를 완공한 뒤 1층 매점과 2층 일반음식점 2개, 3층 휴게음식점 2개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공개 임대입찰에 나섰으나 희망자들이 없어 유찰됐다.

고하도 유원지의 해안경관과 유달산 산악경관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신축한 유달 유원지 상가가 임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싼 내부 시설비용과 임대료 때문이다.

특히 내부시설 투자에 최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 소요되나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는 또 다시 공개입찰로 임대업자를 선정토록 규정돼 있어 시설비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임대료를 까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목포시가 전세가 아닌 월세를 고집하고 있는 점 등도 상인들이 임대료를 회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포시는 금명간 2차 입찰에 나설 계획이나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찰이 계속될 경우 목포시가

당초 기대했던 임대료 수익의 절반도 거두기 힘든 실정이라서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인근 축교동 박모(45)씨는 “내부 시설비로 5천만원 이상 투자했다가 2년 뒤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할 경우 시설 투자비용을 날리게 되는데 누가 임대에 나서겠느냐”며 “임대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목포시가 35억원을 투자해 지난 5월 준공했으나 임대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금껏 문이 닫혀 있는 유달유원지 상가 전경. /목포=이상선기자 sstee@

“목포지역 최대현안은 무안반도 통합”

시민 1,950명 설문조사 응답~삼학 교량 2위

목포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안반도 통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목포시)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목포시민 1천 95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으며 전체의 91%가 무안반도 통합에 찬

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무안반도 통합에 이어 용당~삼학 구간의 교량 건설(24%)이 목포 현안을 꼽았으며 삼학도 복원화 사업(18%), 축구센터의 조기완공(13%) 순으로 나타났다.

목포 인구증가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대불공단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4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 유관기관의 남약 신도시로의 조기이전(23%), 호남고속철도 및 무안국제공항 조기완공(19%) 순으로 조사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목포 유달·달성공원

24년만에 입장료 없어

목포 유달 공원과 달성공원 입장료가 24년만에 폐지된다. 목포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여론

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6일부터 이들 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달·달성공원은 지난 1982년부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해왔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유처리제 살포기 개조 해양오염 방제 효율 높여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는 소량의 해양오염 사고시 방제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대용 유(油)처리제 살포기(스프레이)'를 자체 개조해 작업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살포기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활용한 것으로, 기존 살포기가 너무 짧아 해상에서 떠 있는 기름 표

면에 정확하게 처리제를 뿌리기 어렵고, 작업자가 방제 약제에 노출되는 단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 발생시 최대 10m까지 정확하게 유처리제를 뿌릴 수 있고, 작업량의 유처리제를 사용해 작업 안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지역 단신/

목포 옥암동 '자치 박람회' 우수상

목포시 옥암동이 '2006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포함 4개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다.

옥암동은 최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된 (사) 열린사회시민연합 주최, 박람회에서 종합운영분야 우수상과 주민자치 우수사례상 등을 수상했다.

전국 136개 주민자치센터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옥암동은 삼향천환경살리기와 나눔의 쌀 '뒤죽박'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동네만들기, 농촌지역과 자매결연 등의 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목포대학교 개교 60주년

오늘부터 3일간 기념행사·대동제

목포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11일부터 사흘간 무안군 청계면 도림캠퍼스 일대에서 개교 기념행사와 함께 '2006 대동제'를 연다.

이번 축제에서는 '도림골 노래자랑', '댄스팀 공연'과 함께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도전 내가 최고', '마술 공연', '즉석 장기자랑', '커피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플라자 60 개관식' 및 '결계그림 제작식'에 이어 전교직원과 학생 210명이 참여하는 60m 김발맞이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축제기간 캠퍼스 일대에 주막이 들어서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되며 '야외 영화제'와 '타로카드', '네일아트' 등도 열린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光 州 日 報 日 記 事 內 容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counts for various categories like '여수', '광안', '순천', '곡성'.

Advertisement for Ch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public servant, vocational, and police exam preparation. Includes contact info: www.Chonnamgosi.co.kr, (062)222-5105.

Advertisement for Jangseong Food (장생식품) featuring '35 years of traditional' products. Includes contact info: Tel. (062)385-3303, 362-6900, 362-4334.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ongbu Real Estate (동부부동산컨설팅(주)).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rent,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Contact: (010)7523-4568.